

# 한국인의 행복과 행복 요인



A Study of Happiness and Related Factors among Korean People

이용수 | KDI 경제정보센터 자료개발실장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 수준이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게 국가 간 비교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 전체의 행복감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편차로 비교되는 격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행복의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게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여러 생활 영역 중 '소득·소비'와 '일자리'가 행복도와와의 상관성이 크므로, 취약계층의 소득·소비생활과 고용 상황 개선에서 국민 행복 증진의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 또한 국민 대다수가 불행 요인으로 우리 사회 시스템이 가져다주는 불안감을 지목하였다. 자칫하면 삶에서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어 헤어날 수 없다는 인식이 그 불안감의 요체다. 따라서 사회 전반에 팽배한 시스템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 1. 들어가며<sup>1)</sup>

유엔의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는 매년 갤럽세계조사(Gallup World Poll)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세계 각 나라의 행복지수를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때 활용하는 설문은 응답자가 체감하는

행복도를 0~10점으로 매기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유엔의 2018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5.875를 기록, 국가별 비교 순위로는 157개국 중 57위에 해당하며, 비교 대상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만 한정하면 34개국 중 바닥권인 32위에 해당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한 2017년

1) 이 글은 조병구 외(2018) 국민행복지표 개발 연구의 3, 4장 중 일부를 발췌, 요약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라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 수준이 경제적인 위상에 비해 한참 뒤쳐진다는 평가로 연결된다.

이처럼 우리 국민 ‘평균’으로 본 행복도가 낮은 것도 문제지만, 행복의 ‘격차’ 또는 ‘불평등’이 크다는 게 더 문제다. 유엔의 2018년 세계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15년 기준 행복도 분포에서 ‘표준편차’로 측정된 우리나라의 ‘행복 불평등도’는 2.155로, 157개국 중 96위를 기록하였다. 국민 행복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특성을 한마디로 ‘행복의 격차가 심각한 사회’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따라서 국민 행복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행복의 사회적 격차에 초점을 맞추어 행복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다루고자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로 최근 ‘국민행복지표 개발 연구’(조병구 외, 2018)를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설문조사 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우선 어떤 이들이 상대적으로 불행해하는지, 특히 지금까지도 불행했고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이들을 특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행복도와 함께 생활 영역별 만족도를 활용하여 잠재계층분석(LCA: Latent Class Analysis)을 통해 행복/불행집단을 유형화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행복취약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우

리 사회 시스템과 관련하여 어떠한 측면에서 불안을 느끼며 행복도가 어느 정도로 낮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한국인의 행복 유형과 요인

### 가. 한국인의 행복과 집단 유형 분류

#### 1) 과거-현재-미래 행복감 및 기대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에 대해선 앞서 국가 간 비교 자료를 통해 대략적으로 알아보았다. 행복 문제에서 다음의 기초적인 관심은 누가 더 행복감을 느끼는지, 아니면 더 불행해하는지일 것이다. 조병구 외(2018)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에서는 행복감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물었다. 현재의 행복감을 0~10점으로, 과거 5년 전과의 비교 및 미래 5년 후의 기대는 -5에서 5까지로 측정했다. 물론 행복감을 단순히 직접적으로 물어 측정하는 방식은 응답자가 자신의 상황을 과도하게 주관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는 점, 그리고 국민 행복은 주관적인 행복감 외에도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여러 요인이 결합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하지만 문제를 밝혀 나가는 도입부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살펴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대와 성별을 조합하여 행복감을 살펴본 결과,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행복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여성을 대표로 하여 20~40

표 1. 연령대·성별 행복감 차이

	사례 수	현재 행복감 (0~10)		과거와의 비교 (-5~0~5)		미래 행복 기대 (-5~0~5)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총계	2000	6.70	1.781	.89	1.924	1.39	1.898
20대 남성	169	6.50	1.897	.93	2.086	1.73	1.923
20대 여성	155	7.02	1.618	1.02	1.843	2.03	1.828
30대 남성	193	6.74	1.722	.89	1.983	1.46	1.805
30대 여성	182	7.19	1.446	1.58	2.100	2.23	1.838
40대 남성	216	6.56	1.821	.89	1.797	1.34	1.920
40대 여성	211	7.08	1.535	1.24	1.829	1.82	1.863
50대 남성	203	6.40	1.931	.52	1.981	1.07	1.942
50대 여성	203	6.75	1.592	.94	1.737	1.53	1.772
60대 이상 남성	207	6.19	2.029	.40	1.928	.62	1.761
60대 이상 여성	261	6.65	1.854	.64	1.774	.59	1.649
통계값		Welch F=6.50*** d.f.=9, 793.64		Welch F=5.95*** d.f.=9, 790.55		Welch F=19.93*** d.f.=9, 790.85	

주: \*.p<.05, \*\*.p<0.01, \*\*\*.p<0.001.

자료: 조병구, 이명균, 이용수, 김옥. (2018). 국민행복지표 개발 연구. p. 123

대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들이 생활 영역 곳곳에서 성차별을 겪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요즘의 상황과 얼핏 상반되어 보인다. 조병구 외(2018)의 연구에서는 세대와 성별 구분, 그리고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안정집단/한계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별로 행복 및 불행 요인에 관하여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이 FGI에서 젊은 층 여성의 경우 경제·사회 활동에서 여전히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소비를 비롯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경제

적·시간적·정신적 여유를 드러내 보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이해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반면 남성의 경우 여전히 가족 부양의 부담감이 크다는 것을 피력하였는데, 심지어 취업 전 20대 남성들도 미래 가장으로서의 부담감을 동일 연령대 여성들에 비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내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체감하는 행복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건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응답자가 밝힌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상, 중, 하로 나누어 행복감과 기대를 살펴본 결과 이러한 측면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월 가구 소득 기준으로 하 → 중 → 상의 순으로 과거보다 행복해졌으며, 현

표 2. 가구 소득별 행복감 차이

	사례 수	현재 행복감 (0~10)		과거와의 비교 (-5~0~5)		미래 행복 기대 (-5~0~5)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총계	2000	6.70	1.781	.89	1.924	1.39	1.898
하: 300만 원 미만	524	6.29	2.119	.47	2.048	.98	1.985
중: 300만~499만 원	777	6.69	1.683	.94	1.828	1.38	1.881
상: 500만 원 이상	699	7.02	1.530	1.15	1.882	1.71	1.789
통계값		Welch F=23.81*** d.f.=2, 1186.41		Welch F=17.78*** d.f.=2, 1224.61		Welch F=22.55*** d.f.=2, 1234.78	

주: \*:p<.05, \*\*: p(0.01, \*\*\*: p(0.001.

자료: 조병구, 이명균, 이용수, 김옥. (2018). 국민행복지표 개발 연구, p. 124.

재도 더 행복하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 밖에도 누가 더 행복 또는 불행한지와 관련하여 교육 수준, 직업, 거주지 등 일반적인 인구 통계학적 변수 구성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를 살펴해보았는데, 이 중 교육 수준과 직업은 소득 수준과 맞물려 그 경향성이 대체로 일반적인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거주지와 관련하여 해당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서울 거주자들을

강남 3구와 그 외 지역으로 이원화하였는데, 지역 구분에서는 서울의 비강남 지역 거주자들이 현재의 행복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행복감을 과거 시점과 비교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함께 물었으므로, 시점별 행복감을 연결해서 보면 일종의 행복취약 집단 또는 불행문제집단을 규정할 수 있다. 현재의 행복감은 전체 응답자 평균값(6.70)을 기준으로 현재 ‘평균보다 행복한 사람’과 ‘평균보다 불

표 3. 행복/불행집단 분류(시기별 행복감에 따른 분류)

구분	빈도(명)	비율(%)
과거보다 나아지지 않았고, 현재 평균보다 불행하며 미래도 희망적이지 않음	403	20.2
과거보다 나아졌으나 현재 평균보다 불행하고 미래도 희망적이지 않음	48	2.4
현재 평균보다 불행하나 그래도 미래는 희망적임	363	18.2
현재 괜찮으나 미래 불안함	52	2.6
현재 괜찮고 미래도 대략 괜찮음	1,134	56.7

자료: 조병구, 이명균, 이용수, 김옥. (2018). 국민행복지표 개발 연구, p. 127.

행한 사람'으로 이원화하였고, 과거와 미래는 응답 결과 부호를 기준으로 각각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산술적으로는 18개 집단으로 구분되나, 의미적으로 구분하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복 관련 5개 집단으로 나누는 게 타당하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불행하며 과거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고 미래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20.2%였다. 행복의 사회적 격차와 관련해 바로 이 집단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가장 주된 관심 대상이며, 취약한 이들의 불행 탈피 및 행복 증진 차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비록 과거보다 나아졌다고는 하나 현재 평균보다 불행하고 미래도 희망적이지 않은 이들이 2.4%였는

데, 이후의 분석에서는 이들까지 포함한 22.6%의 사람들을 '행복취약층'으로 구분하여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안 정도의 차이 등을 살펴본다. 인구통계학적 구성으로 보면 이러한 행복취약층에는 가구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포함되며, 60대 이상 고령층과 40, 50대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의 특징을 보인다.

### 2) 영역별 만족도와 집단 유형화

이 글이 바탕을 두고 있는 설문조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행복도와 영역별 만족도이다. 영역별 만족도에서 영역은 행복, 삶의 질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에서 행복감과 상관성이 큰 것으로

표 4. 행복감과 영역별 만족도 간 상관관계

영역 구분	현재 행복감과의 상관관계
소득·소비	.575***
고용	.501***
가족관계	.469***
주거	.461***
사회관계	.430***
건강	.411***
교육	.405***
문화·여가생활	.392***
공동체 참여	.349***
안전	.258***
환경	.210***
안보	.206***
정치 상황	.170***

주: \*:p<.05, \*\*: p<0.01, \*\*\*: p<0.001.  
 자료: 조병구, 이명균, 이용수, 김옥. (2018). 국민행복지표 개발 연구. p. 138.

가정되어 온 것들로, 총 13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각각 0~10점으로 측정하였다. 앞에서 시기별 행복감으로 행복취약층을 구분하였는데, 여기에서는 현재의 행복감과 함께 13개 영역별 만족도 등 총 14개 행복도·만족도를 활용하여 행복/불행집단을 유형화한 내용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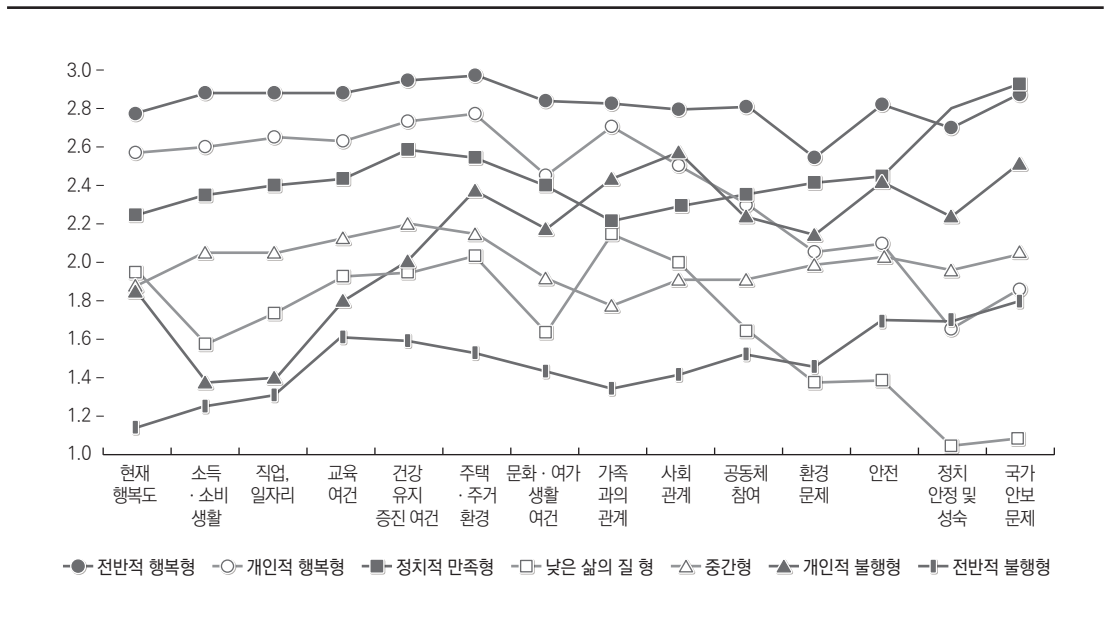
행복/불행집단의 유형화에 앞서 먼저 현재의 행복감은 어떤 영역의 만족도와 상관성이 큰지를 살펴보았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소득·소비', '고용' 영역에서의 만족도가 현재 체감하는 행복도와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가족관계', '주거' 영역 순이었다. 반면 '정치 상황', '안전', '안보' 및 '환

경' 영역의 만족도는 현재 행복감과의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복/불행집단 유형화의 한 방식으로 행복감과 더불어 13개 영역별 만족도를 바탕으로 잠재계층분석(LCA)을 실시하였다. 변수별 응답률을 기준으로 하위 30%, 중위 40%, 상위 30%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7개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1]은 행복도와 만족도를 활용한 LCA 분석 결과를 보여 준다.

그림 1. 행복도·만족도를 활용한 집단 유형화(LCA 분석 결과)

(단위: %)



자료: 조병구, 이명균, 이용수, 김욱. (2018). 국민행복지표 개발 연구, p. 140.

행복도와 만족도를 기준으로 집단별 특징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1집단은 행복도와 함께 대부분의 영역에서 만족도가 최상인 집단이다. 다만 ‘정치 안정 및 성숙’에서는 3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약간 떨어지는 정도이나, 이룸하여 ‘전반적 행복형’으로 부를 수 있다. 전체 응답자 중 12.7%가 이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2집단은 행복도를 비롯하여 주요 영역에서 1집단인 ‘전반적 행복형’ 다음으로 행복감과 만족도가 높다. 하지만 환경과 안전 문제, 국가 안보와 정치 영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려를 강하게 나타낸다. ‘개인적 행복형’으로 이름 붙였으며, 응답자 중 18.1%가 이 집단에 속한다.

3집단은 행복도를 비롯한 주요 영역에서 만족도가 2집단(개인적 행복형) 다음이거나 앞서며, 특히 국가 안보와 정치 안정 및 성숙 면에서 만족도가 최상인 특성을 보인다. 그리하여 ‘정치적 만족형’으로 특징화하였으며, 응답자 중 16.0%가 이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4집단은 다른 영역에서는 행복도와 만족도가 중간 내지 중하 정도인데, 유독 환경 문제, 안전 문제, 국가 안보, 정치 안정 및 성숙에 대한 만족도가 최저인 집단이다. 이룸하여 ‘낮은 삶의 질형’으로 구분하였다. 응답자 중에서는 7.0%가 이 집단에 속하였다.

5집단은 모든 영역에서 행복도와 만족도가 전체 응답자의 중간 정도로, 이룸하여 ‘중간형’이라 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자인 25.7%가 이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6집단은 다른 영역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중간 내지 그 이상이지만, 현재 행복도를 비롯하여 소득·소비생활, 고용, 교육 여건, 건강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특성을 보인다. ‘개인적 불행형’으로 이름 붙였으며, 응답자 중 6.8%가 이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집단은 1집단(전반적 행복형)과 가장 대비되는 집단으로, 대부분의 영역에서 행복도와 만족도가 최하 수준인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이른바 ‘전반적 불행형’으로 특징화하였고, 응답자 중 13.8%가 이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이 행복도와 만족도를 활용하여 집단을 유형화하여 분류해 놓고 볼 때, 행복의 집단 간 격차를 줄인다는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집단은 ‘전반적 불행형’(7집단)과 ‘개인적 불행형’(6집단)이라 할 수 있다. 두 집단을 합하면 20.6% 정도이니 앞에서 시기별 행복감으로 분류한 행복취약층의 비율과 대체로 비슷하다. 물론 시기별 행복감의 분류에서 도출한 행복취약층과 행복도·만족도를 활용한 집단 유형에서의 주목 대상 집단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두 가지 방식에서 나온 국민 행복 관련 취약층의 비율은 대략 20% 정도라 추정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잠재 집단별로 어떤 사람이 주로 속하는지를 알아보려고 집단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구성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언급할 유형은 ‘중간형’(5집단)인데, 전체 응답자 중 ‘중간형’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확연히 높은 만큼 모든 세대, 성별 구성에서 ‘중간형’이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문제시되는 ‘전반적 불행형’(7집단)에는 60대 이상 고령자가 다른 세대에 비해 많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반적 행복형’(1집단)에는 20대와 30대 여성이 많이 속하는데, 이 연령층의 여성은 전반적 행복형과 함께 ‘개인적 행복형’(2집단)에도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는 특징을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형화한 집단 중 행복 문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집단 유형은 ‘전반적 불행형’(7집단)과 ‘개인적 불행형’(6집단)이다. 이 유형들에서는 특히 60대 여성과 함께 20대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이 중 특히 20대 남성의 경우 동일 연령층 여성이 ‘전반적 행복형’과 ‘개인적 행복형’에 상대적으로 많이 속한다는 점에서 동일 연령층 내에서 성별에 따라 가장 대비되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정치적 만족형’(3집단)에는 50대 남성과 20대 여성, 30대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다. 50대 남성의 경우 이른바 ‘86세대’로서, 청년기에 민주화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정치 참여와 최근의 정치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점

에 따라 이처럼 특징지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낮은 삶의 질형’(4집단)에서는 30대와 40대의 구성이 두드러지는데, 이들이 환경 문제, 안전 문제 등 일상생활에서의 질 높은 삶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소득 수준, 학력, 직업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 잠재유형집단별 구성에서도 이러한 측면이 드러난다. 즉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낮은 이들,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무직과 단순 노무 종사자가 ‘전반적 불행형’(7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관리자와 전문가, 기술자 및 준전문가, 사무직은 ‘전반적 행복형’과 ‘개인적 행복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5〉는 이상에서 언급한 행복도·만족도를 활용한 잠재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요약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서도 보듯이, ‘전반적 불행형’과 ‘개인적 불행형’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구성이 유사하며, 그 특징은 시기별 행복감에서 분류한 취약층과도 비슷하다.

표 5. 잠재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집단 유형	특징
전반적 불행형, 개인적 불행형	60대 이상, 20대 남성, 저소득층, 저학력층, 무직 및 단순 노무 종사자
낮은 삶의 질형	30, 40대
정치적 만족형	50대 남성, 20대 여성, 30대 남성
전반적 행복형, 개인적 행복형	20~30대, 고학력층

자료: 조병구, 이명균, 이용수, 김옥. (2018). 국민행복지표 개발 연구. p. 209.



나.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행복

이 글의 바탕이 되는 연구에서 설문조사의 주된 내용은 행복감 및 영역별 만족도와 함께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었다.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이유는 신뢰, 불평등, 공정성, 비교 성향, 사회이동성 등이 국민 행복과 어느 정도 상관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먼저 생활 영역별로 성과 및 기회 상실의 불안감을 말하고자 한다. 이 글이 기반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와 함께 FGI를 실시하였다. 세대와 성별에 따라 생활 여건이나 상

황이 아주 좋은 이들과, 반대로 매우 좋지 못한 사람들로 구분한 뒤 각각 행복 및 불행의 이유와 맥락을 물었다. 이 FGI를 통해 나온 내용들은 다양하지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은 생활 여건이나 상황이 아주 좋은 사람들도 성과 및 기회 상실에 대한 불안감을 강하게 피력하였다는 점이다. 즉 상황 및 생활 여건이 좋은 이들도 여전히 격한 경쟁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불행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로 성과 및 기회 상실에 대한 불안과 패자 부활이 불가능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말했다.

표 6. 영역별 기회 및 성과 상실이나 피해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응답률(%)			5점 척도 값*	
	①+② 불안	③ 보통	④+⑤ 불안하 지 않다	평균	표준편차
소득, 부, 재산	49.5	30.2	20.4	2.60	1.007
취업 기회, 일자리, 사업	48.5	28.7	22.9	2.65	1.047
교육 기회	20.6	42.5	36.9	3.20	.928
의료시설 이용	23.5	31.4	45.1	3.22	1.005
주택, 주거	25.5	32.1	42.4	3.19	1.004
좋은 공기, 물 등 환경	38.2	29.2	32.7	2.90	1.099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 환경 유지	17.2	20.6	62.3	3.57	1.089
이웃, 친구들과 좋은 관계 유지	14.8	25.2	60.0	3.53	.961
지역사회활동 참여	15.9	46.8	37.3	3.24	.833
문화·여가생활 기회	15.9	43.3	40.9	3.29	.848
사고, 범죄로부터의 안전	41.0	34.2	24.9	2.78	.986
국가 안보	39.0	38.5	22.5	2.76	.965
정치적 안정	41.5	43.1	15.5	2.64	.891

주: 5점 척도 값은 1. '매우 불안하다' 2. '불안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불안하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불안하지 않다' 로 코드화하여 산출한 값을 의미함.  
 자료: 조병구, 이명균, 이용수, 김옥. (2018). 국민행복지표 개발 연구. p. 146.

이러한 측면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난다. 생활 영역별로 성과 및 기회 상실에 대한 불안감을 설문한 결과(표 6), 특히 '소득·부·재산'과 '취업·일자리·사업' 기회를 잃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정치적 안정', '사고 및 범죄로부터의 안전', '좋은 공기, 물 등'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불안감과 행복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는데, 환경, 안전, 정치 영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영역에서 행복취약층 및 '전반적 불행형'에 속하는 사람들이 더 불안감을 느끼

고 있었다.

상황 악화 시 회복 가능성에 대한 설문에서도 국민들이 느끼는 부정적 인식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표 7>에서 보듯이, '본인이나 가족이 심한 중병에 걸리면 가정경제가 무너지기 십상이다'에 응답자의 67.3%가 동의를 나타내,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사업 실패나 파산 등의 상황을 맞이하면 웬만하면 회복할 수 없다'에 응답자 과반수가 동의한다고 응답하는 등 상황 악화 시 회복이 쉽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표 7. 상황 악화 시 회복 가능성

(단위: %)

	①+② 동의하지 않는다	③ 동의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④+⑤ 동의한다
1) 우리 사회에서는 사업 실패나 파산 등의 상황을 맞이하면 웬만해선 회복할 수 없다	15.4	28.8	55.9
2) 첫 직장에 들어갈 때 소위 일류 회사에 못 들어가면 평생 꼬인다	32.8	31.6	35.7
3) 본인이나 가족이 심한 중병에 걸리면 가정경제가 무너지기 십상이다	9.3	23.4	67.3

자료: 조병구, 이명균, 이용수, 김욱. (2018). 국민행복지표 개발 연구. p. 149.

또한 사회이동성 측면에서도 우리 국민이 가지는 불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를 평가해 볼 때 자칫 하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묻은 결과, 응답자의 56.8%가 그럴 가능성이 약간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능성이 너

무 크다는 응답도 15.1%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응답자가 자칫 하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취약층의 경우 이러한 우려를 더 가지고 있고 같은 맥락에서 상층으로의 이동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표 8. 계층 하향 이동 가능성

(단위: %)

	계층으로의 이동 가능성
① 하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크다	15.1
② 하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약간 있다	56.8
①+② 하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71.9
③ 하층으로 떨어질 우려는 거의 없다	25.3
④ 하층으로 떨어질 우려는 전혀 없다	2.9
③+④ 하층으로 떨어질 우려는 없다	28.1
전체	100.0

자료: 조병구, 이명균, 이용수, 김욱. (2018). 국민행복지표 개발 연구. p. 185.

이 밖에도 대부분의 사람이 우리 사회의 ‘소득·부’와 ‘고용’에서 사회적 격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역시 행복취약층<sup>2)</sup>일수록 격차가 심하고 기회의 불평등도 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복취약층의 경우 가구 소득이 우리 사회 평균보다 낮다고 체감하는 정도가 강했는데, 이는 이들의 ‘소득·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점과 맥을 같이한다.

### 3. 정책적 시사점

유엔의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행복도 관련 국가 간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국민 행복 수준이 경제력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우리 사회 내 행복 격차 측면에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격차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절

감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격차 줄이기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국민 행복 제고를 위한 대응 방향과 관련하여 얼핏 성장이 우선이나 분배가 우선이라는 식의 논란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국민 행복 문제는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삶의 질과 관련된 조건 및 만족도와 상관성이 있으며,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의 비교가 행복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즉 국민 전체적인 행복 수준 제고와 격차 줄이기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조사 분석 결과에서도 행복취약층이 기회 및 성과의 불평등을 더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계층 상승 이동 가능성은 낮게 보는 대신 하향 이동에 대한 우려가 더 강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 행복과 관련한 격차 해소가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행복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취약계층

2) 시기별 행복감과 관련한 분류에서는 현재 평균보다 불행하다고 느끼며 미래 행복에 대해서도 희망적이지 않은 사람들, 행복감·만족도를 활용한 잠재계층분석에서는 ‘전반적 불행형’과 ‘개인적 불행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행복 문제와 관련한 취약층이라 할 수 있다.

의 소득·소비생활 개선과 고용 상황 개선이 기본이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새롭게 도출된 결과라 할 것 없이, 그 어떤 요인보다도 소득 수준에 따른 행복감 및 영역별 만족도의 격차가 뚜렷하다. 또한 체감하는 행복감이 다양한 생활 영역 중 특히 '소득·소비생활', '일자리' 만족도와 상관성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도 국민 행복 관련 격차 해소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는 분명하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뿐만 아니라 FGI에서도 대부분의 사람이 불행의 요소로 '불안감'을 피력하였다. 심지어 생활 여건과 상황이 아주 좋은 사람들도 우리 사회가 자칫하면 헤어날 수 없는 국면에 빠질 수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취약층이 더 심하게 느낀다고는 하나, 세대와 계층을 막론하고 계층 하향 이동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상황 악화 시 회복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격차 해소 측면에서 취약계층의 소득 및 고용 상황 개선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되, 중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에 팽배한 시스템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행복 증진 이전에 생활 각 영역별로 불안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해소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

---

## 참고문헌

조병구, 이명균, 이용수, 김옥. (2018). **국민행복지표 개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18-13-01). 세종: 한국개발연구원.